

## 제 1 편 잠사업의 기원과 발달

| 제1장 | 잠사업의 정의

| 제2장 | 양잠의 기원

| 제3장 | 우리나라 양잠의 역사

# 제1편 잠사업의 기원과 발달

## 제1장 잠사업의 정의

### 제1절 잠사업의 분야별 정의

잠사업(蠶絲業)은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양잠(養蠶)과 고치에서 실을 생산하는 제사(製絲)활동이 조합되어 잠사업이라 통칭하고 있다. 이에 잠사업 유지발전의 일환으로 양잠생산의 기반조성과 유지발전을 위하여 뽕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상묘생산업(桑苗生産業)과 누에의 씨를 공급하는 잠종생산업(蠶種生産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잠, 제사, 상묘, 잠종 등 4개 업종이 함께 협력하여 잠사업의 주축을 이루며 잠사산업 전반을 견인하고 있다.

#### 1. 양잠산업의 정의

누에(蠶, Silkworm)는 명주실을 생산하는 기능을 지닌 곤충이며 지극히 오래전부터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져 오고 있다. 누에가 뽑아낸 실은 인간에게 의류의 형태로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다움까지 선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누에(학명: Bombyx mori, L.)는 실을 뽑아내어 인간에게 생활의 유익함을 돕는 이로운 곤충이며 곤충학에서 명칭은 집누에나방(가잠



아: 家蠶娥)에 속한다.

이러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양잠산업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잠산업이 기능성 식품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누에고치 생산은 줄어드는 반면 양잠 그 자체는 소재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다양한 양잠산물 생산과 가공에 따른 산업으로 개념이 전환되면서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 2. 상묘산업의 정의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육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을 먹는다. 이러한 뽕잎을 제공하는 뽕나무의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이 바로 상묘산업이다. 뽕나무는 생육 기간 중에 많은 수분을 요하는 식물이므로 뽕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한 양의 수분이 유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강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상은 대체로 뽕나무 생육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뽕나무가 잘 자란다.

뽕잎은 누에가 섭취하는 유일한 사료이므로 우량 뽕나무의 재배는 누에치기의 기본이며 필수적 조건이다. 즉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뽕잎의 생산비는 고치 생산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잠의 경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3. 잠종산업의 정의

누에사육의 시작은 누에의 알에서부터 출발한다. 누에의 알을 생산하는 업종이 바로 잠종산업이다. 잠종의 생산은 원원누에사육, 원누에사육, 씨고치(種繭)의 보호, 채종 및 누에알 씻기와 정리 등 과정에 따른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자의 손작업이 수시로 진행되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양잠농가에서 우수한 누에사육이 가능하도록 잠종을 생산하는 업체는 누에알 생산을 위하여 사전에 병독검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종자 및 품종보호)에 따라 잠종제조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잠종생산이 가능하며 원원잠종 또는 원잠종으로부터 생산된 씨고치로만 생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4. 제사업의 정의

제사업은 공장에서 기계에 의하여 생사를 생산하는 과정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공업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제조과정의 성격상 누에고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사를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형태를 띄우고 있다. 따라서 제사업은 양잠업이 존재해야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업도 최종 제품인 견직물의 원자재가 되는 생사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중간단계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제2절 양잠의 조건

#### 1. 기술적 조건

양잠은 뽕나무의 재배와 누에치기의 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다른 농업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누에를 사육하는 과정마다 세심한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양잠은 개인의 기술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성적에 매우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양잠업은 뽕나무의 재배로부터 누에치기의 여러 과정에 걸쳐서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다. 양잠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다루는 뽕밭관리에서 곤충을 다루는 누에사육까지 양잠생산 환경의 기술을 익힐 정도의 높은 지식수준과 노력이 필요하고 누에가 고치를 짓기 전 1주일간은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 2. 환경적 조건

일반적으로 논 농사지대에서는 농약의 공해가 심하여 양잠을 경영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논농사 지역에는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동력기를 이용한 방제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먼 곳까지 농약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누에 사

육에 치명적인 피해가 염려된다.

따라서 양잠의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농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밭작물 지대에 있어서도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수원 지대와 같은 곳 또한 적당하지 못하며 뽕나무 성장에 유력한 경합 작물이 있는 지대도 생장에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양잠지역 선택에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경영적 조건

양잠의 기반이 되는 뽕나무는 다년생 작물이므로 일단 심어놓은 뽕밭은 규모를 갑자기 변동시킬 수 없다. 즉 뽕나무는 심은 뒤 3~4년이 지나야만 충분한 뽕잎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갑자기 뽕밭을 늘릴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리하다고 하여 심어져 있는 뽕나무를 간단하게 뽑아 버릴 수도 없는 어려움이 상존해있다.

과거 누에고치 생산은 제도적으로 그 판로가 보장되어 있어 안심하고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에고치는 지역 간의 차이와 수량에 제한 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가격의 변동이 심한 다른 작물에 비해 안정된 경영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양잠농가에서 누에고치의 생산은 경제적 수익성 저하에 따라 중단되었다. 누에고치 생산에서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으로 양잠생산이 전환됨에 따라 양잠산물의 부산물인 누에와 뽕잎, 오디 등을 직접 가공하고 생산하여 판매까지 담당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 노동적조건

양잠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의 두 가지의 농 작업이 필요해서 다른 농업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노력이 소요되며 특히 누에치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일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일시적으로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잠 노력은 연중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특정한 짧은 기간에만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잠은 노동 집약적이기는 하지만 부녀자나 노약자들도 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를 이용할 수 있어 적절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조건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기도 하다.

## 제2장 양잠의 기원

### 제1절 양잠의 시작



인류의 기본적인 문화의 시작은 의식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食)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머문다는 것(住)은 동일하지만 무엇을 몸에 걸치고 입는다는 것(衣)에 있어서 이러한 연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입는 것의 천연재료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누에가 뽑아낸 실로 만들어진 섬유인 명주(明紬: 비단, 실크)다. 오래전부터 명주는 '섬유의 여왕 Only silk is silk - 오직 실크만이 실크이다.'라고 불리며 섬유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전통과 그 지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1. 기록으로 전해지는 양잠의 기원



중국 허남성 황제와 선잠의 동상

양잠의 기원으로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화나 전설에 따라 복희씨(伏羲氏) 또는 신농씨(神農氏) 시대에서 양잠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으로는 고대중국 황제(黃帝 軒轅氏)의 부인(元妃)인 '서릉씨'가 최초로 양잠과 제사를 통해 견직물을 생산하는 방법(서릉씨 시잠: 西陵氏 始蠶)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B.C. 2650년 중국의 고서인 회남자(淮南子)의 「잠경(蠶經)」에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양잠의 기원은 5천여년 전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왕비의 친잠(親蠶)에 관한 기록에 해당 됨으로 실제로 일반에서 양잠을 통한 견직물생산이 시작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유물로 확인되는 양잠의 역사

1926년 중국의 산서성(山西省) 장안(長安: 지금의 西安) 근처에서 양사오(仰韶)시대 (B.C. 2500년경)의 유적발굴에서 출토품 가운데 견각(繭殼)이 발견되면서 양잠의 기원을 신석기 시대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B.C. 2500년 전 누에고치 출토물

중국의 잠업사화(주광명 周匡明 著,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83년 출판 - 대한잠사회 2019년 구입, 번역) 기록에 따르면 1926년 양사오 문화유적지(산서성 하현 서음촌)에서 반쪽 누에고치 껍데기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는 5천 년보다 더 이전의 유물이라고 한다.

또한 1958년 절강성 옹흥현 전산양 지역에서 일부 견직물이 출토되었는데 탄소측정결과 4750±100년 전 또는 5260±135년 전 유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출토유물로 볼 때 이미 5천 년 이전부터 견직물이 생산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더 나아가 1973년 절강성 여요현 하모도 문화유적지에서는 7천 년 전 견사직물이 발견되어 이미 그 당시에 누에 실을 방직원료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양잠의 과정인 누에사육을 통하여 고치에서 실을 추출하였는지 또는 야생에서 고치를 채취하여 실을 추출하였는지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서능씨 이전 사람들은 일반 생활 속에서 양잠에 대한 시각이 의생활보다는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식생활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즉 야생의 누에고치를 채취하여 그 내부에 번데기를 식용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격적인 양잠의 일은 그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이 요구됨으로 초기에는 누에사육에 의한 양잠이라기보다는 산이나 들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야생누에(野桑蠶)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누에사육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뽕나무 잎이나 근처의 구조물에 지은 누에고치를 채취하여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생활에 이용하였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것은 중국의 고서인 서경(書經)에 '애주출압사(哀州出壓系)'라는 기록으로 추측이 된다.



蠶業史話 중국고대양잠기록

## 제2절 고대인류와 양잠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家蠶絲)이 섬유로서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초기에 누에고치를 활용한 방법은 일정한 굵기의 제사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솜 모양의 섬유로 만들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되



황제와 누조 (상상도)

어 오다가 누에고치에서 실 끝을 찾아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이후 누에고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점차 고치에서 뽑아낸 실(繅絲)로 직조(織造)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섬유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명주가 출현 될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의류소재인 식물섬유(大麻)나 동물섬유 소재의 섬유와 명주 소재를 비교해 보면 보온성이나 촉감, 무게와 가공성 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서 명주가 최고의 섬유로 평가받게 된 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제3절 문자와 전설로 본 양잠

선사시대 인류는 짐승의 가죽(獸皮)이나 털(毛皮)을 이용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냈고, 식물 가운데 마(麻)를 가공한 거칠고 굵은 상태의 실을 만들어서 여름 옷감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믿어지며, 「紡」자의 어의(語義)를 찾아보면「治麻編絲」라 되었으니 「紡」자는 「絲」의 기원보다 훨씬 옛날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실크의 발견 초기에는 누에고치에서 장섬유(長纖維)로 뽑아내어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며 나방이 뚫고 나온 고치(出殼繭) 상태를 그대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고치를 삶은 다음에 명주솜으로 만들고 그것을 늘이고 꼬아 내면서 방사(紡

繅 繅 繅 絲 絲 系 絲

絲)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다시 언급하면 「紬」(주)가 먼저 생겼고 「紗」(사)가 이후에 자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로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생산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이유로 실크가 누에 고치실로 만들어지는 사실은 로마시대까지도 국가적인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로마인들조차 누에고치 실로 직조된 명주(비단: 실크)의 생산방법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양잠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해당하는 전설을 살펴보면

“만물을 관장하는 신(神)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벌레에게 강제로 황금(黃金)의 실을 뽑아내게(吐出) 했다.”

“최초에 생긴 누에고치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눈썹(眉上)에 걸려 있었다.”

“장난스러운 왕의 여인(皇女)이 뜨거운 찻잔(茶湯) 속에 고치를 떨어뜨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여인의 어머니는 찻잔에서 고치를 젓가락으로 꺼내려다 뜨거운 물에 부드럽게 된 고치에서 가는 실이 계속해서 풀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등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설 외에도 ‘누에는 여인이 죽은 녀’이라는 전설도 있고, ‘말(馬)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곤충이 되어 누에고치가 되었다(馬頭郎)’는 전설도 오래전부터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오면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공주의 혼례를 이용한 양잠기술의 해외유출

## 제3장 우리나라 양잠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양잠이 시작된 것은 기록에 의한 역사(有史) 이전부터 행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후가 대륙성으로 강우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춘추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양잠 조건에 적합한 습기의 방지는 물론 병독 만연 방지에 효과적인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잠에 반드시 필요한 뽕나무가 전국 각지에 자생(自生)하며 누에도 각지의 뽕나무에서 야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독자적인 양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 양잠의 기원은 중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 중국 전한시대 청동 금누에 장식 출토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상국(扶桑國)이라 하였으며 그 의미는 ‘동쪽에 해가 뜨는 나라(扶)’이고 ‘뽕나무(桑)가 많으며 잘 자라는 나라(國)’로 고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뽕나무가 많고 잘 자라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그곳은 누에가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 제1절 동이인이 최초로 양잠

1992년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국제 견직물 문화연구토론회’에서 당시 중국 산둥성잠업연구소의 화덕공이라는 잠업연구원은 “동이인이 최초로 잠사를 이용하고 양잠을 시작하였다”라는 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을 보면 양잠의 기원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둥지역은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먹을 것(食)보다 추위를 이겨내며 생

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몸을 보호하는 옷(衣)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양잠이 시작되었다는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물이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제2절 고서의 양잠기록

우리나라 양잠을 권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기록된 한단고기(임승국 譯註, 1987)에 서술된 단군조선시대 기록에 양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 ○ 무진 원년(B.C. 2333)

바야흐로 신시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 비서갑의 하백녀를 후(后)로 삼고 누에고치를 다스리게 하니 순방의 다스림이 온세상에 두루미쳐 태평치세를 이루었다.(戊辰元年 大始神市世 ..... 斐西甲河白女爲后治蠶淳龐之治熙洽四表)

#### ○ 경자 93년(B.C. 2241)

단제께서 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고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먹고 남은 것을 나라 살림에 보태었다.(庚子九十三年帝 ..... 浚溝洫開全勸田蠶治漁獵 民有餘物 俾補國用 .....)

#### ○ 신축 원년(B.C. 2240)

단제께서 도랑을 파고 고치며 농사짓고 뽕나무 심는 것을 권장하였다.(辛丑元年 帝 ..... 浚渠洫勸農桑設 .....)

는 내용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군의 양잠장려 기록 (한단고기)

또 다른 기록으로 기자조선에 있어서도 지리지(地理志: 一名 東國地理誌, 韓白謙 著)에 교기민이례의전잠직작(教其民以禮儀田蠶織作) 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기자조선 시대에도 잠사업이 널리 진행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고서(古書)인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사기(史記)」와 후한서(後漢書)에도 고조선 당시의 누에사육에 관한 기록이 있어 고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양잠이 시작된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양잠의 사육이나 직조기술을 전파해 주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양잠의 방법이 발생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제3절 삼한시대 양잠

단군시대를 지나 부족국가와 삼한시대에도 자생적으로 양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뽕나무를 심고 비단을 직조하여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시대에도 국가적으로 양잠 장려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을 비롯하여 일반에서도 비단 옷을 직조하여 입기 위한 자급자족 형태의 양잠과 견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록은 「동국통감(東國通鑑)」, 「한서(漢書)」 등 기록으로 확인되어 당시의 부족 국가들과 삼한시대에 양잠이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졌을 것으로 보여 진다.

#### 1. 변한(弁韓)

삼한시대의 양잠에 대한 기록으로는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저술한 ‘삼국지’(三國志 : 285년경)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변한조(弁韓條) 기록에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는데 적당하고 잠상을 알며, 비단을 짜고 (토지 비미의이종오곡급도 : 土地肥美宜移種五穀及稻, 효잠상작겸포 : 曉蠶桑作縑布)...’라 하였다. 변한(弁韓 : 전라도)에서는 진한(辰韓)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雜居) 성곽이나 의복은 비슷해도(皆同) 언어와 풍습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사람들의 형체(人形)는 모두 장대하고(皆長大)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며(美髮) 의복을 정결하게 입고 형법이 준엄하다 라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



#### 2. 마한(馬韓)

후한서(後漢書) (梁의 劉昭 著 12君의 史蹟記) 한조(韓條, 마한 馬韓)에 기록으로는 ‘마한(馬韓 : 경기, 충청, 황해)은 토지가 비옥(肥美)하여 오곡과 면(綿)의 이종(移種)에 적당하고 잠상(蠶桑)으로 명주(綿布)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其民土着種植(稻), 馬韓人知蠶田織絹布...)’라는 내용의 기록이 나타난다. 크기가 배 만한 밤이 나왔고 또 가는 털의 꼬리를 가진 닭을 길렀는데 그 꼬리는 모두 길이가 5척 남짓했다. 그리고 금모와 비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직 영주(瓔珠)만을 중히 여겨서 옷에 꿰메어 장식을 하였고 목에 걸고 다녔다.

#### 3. 진한(辰韓)

삼국지(三國誌 : 晉의 陳壽 著 中國 三國時代의 史記)에서 ‘진한(辰韓 : 경상도)은 잠상(蠶桑)을 알(知)고 겸포(縑布)를 생산(作)하니라(辰韓 土地 肥美 宜移種五穀及 稻 蠶桑)’는 기록이 있으며, 東國通鑑(徐居正 鄭孝恒 著)에서는 ‘진한의 노인들이 말하기를 진나라에서 힘든 일(苦役)을 피하여 이곳에 왔다고 하였다. (辰韓은 馬韓의 東에 在하며 人의 亡人이며)...(중략) 땅은 토질이 비옥하여 오곡을 경작하기에 마땅하고 그 사람들은 누에를 쳐서 견포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地는 五穀에 適當하고 蠶桑에 饒足하여 絹布를 製作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 4. 부족국가 예(穢)

이밖에 지금의 강원지방에 있었던 부족국가인 예(穢)에 대하여도 후한서(後漢書 : 後漢의 班周와 班昭 著 中國前漢의 史記) 권 115 예전(穢傳)에 ‘穢는 蠶를 養하고, 布를 製作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예(穢)는 스스로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라 전하는데(~중략~) 예족(穢族)은 종마(種麻)를 알고 잠(蠶)을 사육(養)하며 명주(綿布)를 작(作)한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반도에 형성된 당시의 부족국가와 삼한시대에는 이미 보리·기장·피·콩·참깨 등 오곡 외에 ‘뽕나무를 가꾸어 누에를 치고 명주를 짜는 방법’은 물론, 벼의 재배도 성행하여졌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양잠의 전통과 기술은 이후 삼국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 제4절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양잠 (B.C. 57 - 935)

삼한시대까지의 양잠은 민간에서 이를 널리 행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양잠의 실행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장려시책은 실시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국가에서 양잠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한 구체적 시기는 삼국시대부터라 여겨지며 이는 의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단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는 B.C. 57년부터 935년까지 약 1천년에 해당하며, 이웃 중국에서는 이 시대가 한(漢)말엽부터 후한(後漢, 수(隋), 당(唐)나라 시대에 해당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형태를 띠게 된 시기는 4세기 초에서 7세기 중엽까지이며 이러한 삼국은 부족국가적인 형태를 벗어나 점진적으로 전형적인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며 민족의식이 강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정립된 시대이다. 이러한 삼국의 대외관계는 나라별(국가별) 중국과의 관계가 전개된 상황에 따라 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국 고대 벽화에 기록된 삼국시대 사신들 복장

<중국을 방문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들의 복장[使臣圖]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 잠사업의 우수성이 매우 앞서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삼국은 각기 한반도 내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중국의 남북조시대 대립을 적절히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북방의 유목민이나 남방의 일본과도 외교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국의 발전에 필요한 중국의 문물을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수입하여 발전을 도모해 나갔다. 특히 백제는 일본으로 다양한 문물을 전파시켜 고대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주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양잠의 기술전파도 포함되어있다.

삼국시대의 양잠도 이러한 삼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성립되고 발전되었으며 당시 문헌의 기록에 나타난 양잠에 관련된 시책내용을 삼국시대의 국가별 왕조가 실행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구려의 양잠 (B.C. 37 ~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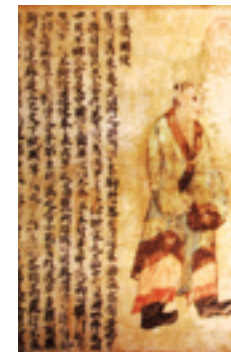
고구려 무용총의 비단의상 벽화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국가를 이룩하였으며 한나라와 전쟁과정에서 부족 연맹체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기본 생업은 주로 농업이었던 관계로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농업 생산 증가를 위한 권농정책과 여러 가지 보호책을 강구하였다. 이것은 삼국 모두가 공통된 특징으로 이러한 농업정책과 같이 어업,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수공업가운데서도 직조, 직물, 염색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구려는 부족연맹체 사회형태 때부터 권잠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비단 생산과 관련된 양잠장려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삼국사기 권제 19,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시조(始祖) 동명왕(B.C. 37 ~ B.C. 20)은 농상(農桑)을 장려하였으며 동명왕 10년(B.C. 28)에는 사치풍조 만연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비단 옷 착용을 금지(禁庶人着文彩紗羅衣)하였다.

또한 평원왕(559~589)시대에는 농상(農桑)을 장려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왕 25년(583) 2월 하순, 지방에 관리를 보내어 양잠을 장려하기도 하였다(二月下令減不急之事 發使郡邑勸農桑)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 2. 백제시대의 양잠 (B.C. 18 ~ 660)



중국을 방문한 백제 사신도

백제는 옛 마한과 변한지역과 주변의 군소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큰 나라로서 농경문화 발전과 더불어 해상을 통하여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동쪽으로는 일본과도 통교하면서 일본에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백제는 세금(租)으로 미곡을 포함하여 포(布), 견(絹), 사(絲), 마(麻)등도 함께 징수했을 만큼 직물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다.

시조인 온조왕(溫祚王, B.C. 18 ~ 27)은 38년에 영을 내려 농상을 권장하였으며 또한 『후한서』(後漢書)에는 백제의 부세는 견포



와 미곡 등을 바치되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기록으로 보건데 백제시대의 적극적인 양잠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주(周)나라의 기록에 따르면 초고왕(166 ~ 213)시대 이역상백제조(異域上百濟條)에서 '세금으로 미곡을 포함하여 포(布), 견(絹), 사(絲), 마(麻)등도 함께 징수(賦稅以布絹業麻及米等)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일본에 비단선물과 함께 바느질을 잘하는 여공(봉의공여, 縫衣工女)을 보내어 옷을 짓는 방법을 전해주었다. (日本書記 卷九 神功后攝正 四十六年條에 「..... 二人遺于百濟國..... 時百濟 肖古王..... 仍以五色綵絹各一疋」同書卷十 應神主 十四年條에 「百濟王 貢縫衣工女 日真毛津 是今來日 衣縫之始祖也」)

초고왕 34년 (199)에는 양잠과 직조방법을 일본에 전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는 양잠법과 직조법의 수준이 발달하여 일본에 양잠과 방직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1929년 일본의 고히라(小原俊雄)는 “蠶의 起源論에서 양잠은 4600년 전 중국에서 시작,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조선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들어왔음”이라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일본에 양잠과 직조방법을 전해주었다는 내용을 확인>

최근에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4세기 말경(382년 또는 405년 전·후 추정) 백제에서 궁월군(弓月君)이라는 사람이 120현의 사람들(약 18,000명)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가 처음으로 양잠과 직조방법을 전했다는 기록(1992년 발간된 <일본사원총람> 광릉사편)이 있다.

■ 궁월군(일본어-하타노 카와카츠)

하타씨(秦氏)는 백제에서 건너온 궁월군(弓月君)을 시조로 하여, 토목, 양잠, 직기 등의 기술을 발휘하여 크게 번창한 고대 씨족이다. 그 중에서도 하타노 카와카츠는, 아스카 시대 전반(6세기 말 ~ 7세기 중반)에 쇼토쿠 태자를 모시며 야마시로국 우즈마사(현재의 교토시 우쿄구 우즈마사 太秦)에 코류지를 창건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오사케 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하타노 카와카츠는 쇼토쿠 태자 사후 고쿄구 3년(644년) 9월 12일에, 소가노 이루카(蘇我入鹿)의 난을 피해 해로로 사코시에 표착해, 주변을 개척해 풍요롭게 한 뒤 죽었다고 한다. 사코시만에 떠있는 이키시마(生島, 천연기념물 지정)에는 하타노 카와카츠의 묘가 지금도 남아있다.



궁월군을 모시는 일본의 신사와 묘지



궁월군 신사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

현재 일본에서는 백제에서 건너온 궁월군(弓月君)을 하타씨(秦氏)라 부르며 하타씨를 시조로 모시는 신사(카이노코야시로 蚕の社は 누에 신사라는 뜻)가 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까지도 궁월군을 중국의 진(秦)나라에서 건너온 왕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신라시대의 양잠 (B.C. 57 ~ 935)

신라는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동남단에 치우쳐 있어서 선진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관계로 사회의 성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지증왕 시기에 국호를 '신라(新羅)'로 하고 이때부터 농경문화(農耕文化)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소(牛)의 동력(耕)을 이용한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되었으며 수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농업생산력 발달로 인하여 신라는 발전하게 되었다.

신라는 이미 오래전 (古新羅時代)부터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시조(始祖) 박혁거세(朴赫居世) 당시에 이미 양잠을 독려(督勵)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정치, 군사적 힘이 발전하는 것에 비례하여 양잠 산업도 매우 발달되었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거서간 17년 조에 따르면 시조(始祖) 혁거세(赫居世 : B.C. 57 ~ 3)는 초기부터 농상을 독려하였고, 17년(B.C. 41)째 되는 해에는 왕비와 함께 6부촌(六部村 - ①關川陽村 ②突山高墟村 ③茂山大樹村 ④嘴山珍支村 ⑤金山加利村 ⑥明活山高耶村)을 순무(巡撫)하면서 농상(農桑)을 장려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권농행사로 보인다.

이어서 3대 유리왕(儒理王 : 32년) 시기에는 6부를 둘로 나누어 왕녀(王女) 2인으로 하여금 각 부의 여자들을 통솔하여, 7월 보름부터 매일 6부의 앞마당에 모여 길쌈을 밤새도록 진행하였고, 8월 보름이 다가오면 그 성적의 결과를 따져 승부를 가려내어, 술과 음식으로 승자에게 보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길쌈이 이미 널리 퍼지고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대 파사왕(婆娑王 : 80~111) 시기에는 왕3년 되는 해에 관리에게 령을 내려 농상(農桑)을 권장하였다고 하며, 원성왕(元聖王 : 785~798) 2년 4월에는 동부지방에 비와 우박이 내려 뽕나무와 보리가 대부분 상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 < 일본에 남아있는 신라양잠의 기록 >

일본 왕실의 기록보관소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촌락의 장적에 보관된 기록물로서 공물(貢物)의 대상에 관하여 당시에 뽕나무의 주수(株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왕실박물관 정창원비단유물

이 장적에는 신라(西原京, 지금의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의 촌세(村勢)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뽕나무 주수는 10호인 사해점촌(沙害漸村)이 1,004주, 15호인 살하지촌(薩下知村)이 1,280주, 8호인 일명촌(逸名村)이 730주, 10호인 서원경소속 일명촌이 1,235주로써 4개촌 43호의 농가에서 모두 4,249주의 뽕나무를 재식(栽植)하고 있었으니 당시의 양잠 상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4. 통일신라의 양잠 (676~935)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는 사치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명주를 짜는 기술도 발달하여 비단도 수(繡)·금(錦)·라(羅)·릉(陵)의 4종류로 세분화 되고 이에 무늬를 입히게 되어 대화어금(大花魚錦)·조하금(朝霞錦)·소화어금(小花魚錦) 등 문양이 들어간 비단의 이름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것들은 당(唐)에 보내는 주요 공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서 신라(新羅)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움을 나타내는 신(新)과 비단을 나타내는 비단 라(羅)의 합성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에서는 이러한 비단의 생산·염색가공 등을 담당하는 조하방(朝霞房)·금전(錦典)·마전(麻典)·기전(綺典)·염관(染官)·소방전(蘇芳典)·찬염전(瓊染典) 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데 까지 이른다.

삼국시대의 양잠에 관한 기록은 찬란한 문화가 꽃 피었던 시대로서 가뭄(旱災), 태풍이나 홍수(水害), 병해충(蝗害) 등 농사에 관한 주위 환경 등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전해 오고 있어, 농업과 양잠에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비단 복장 토우

따라서 양잠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고 양잠생산물을 가공하는 직조기술도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5절 고려시대 양잠 (918~1392)

### 1. 잠업장려 정책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보다 잠업에 관한 기록도 다양하고, 잠업에 대한 장려 내용이나 방법도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려의 역대왕조가 의식의 근원을 농상(農桑)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고려시대 당시 중국 대륙은 송(宋), 남송(南宋), 거란(遼), 금(金), 원(蒙古) 등이 흥망을 거듭하던 시기이며, 이러한 영향은 인접국가인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건국 초기에는 원만한 안정과 번영을 누렸으나 왕조의 후반기에는 외부침략에 따른 전란과 내부갈등에 의한 시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민중의 생활이 더욱 분화되고 진보하여 견포(綿布)의 수요가 확대 되면서 잠업이 더욱 더 장려되었다.

고려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양잠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사회의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보다는 한층 더 발전되고 우수한 품질의 비단 생산이 가능해졌다.

귀족층과 일반인의 생활에서의 비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한층 증가되었다.

고려 역대 왕들은 국가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농업과 양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여기에는 지방행정 관서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농상장려는 물론 법령에 의한 정책적인 농상시책까지 펼쳤으나 노력한 만큼 잠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누에사육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비단생산을 위한 과학적인 양잠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덕종(1031~1034)은 때를 놓치지 말고 농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서를 통하여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밥을 먹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諸)·도(道)·주(州)·현(縣)의 관리들은 힘써 조정의 명령을 부지런히 실행하여 3시(三時: 봄, 여름, 가을 농사철)를 잘 활용하여 때를 놓치지 말고 만백성이 자신의 위치

에서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도록 하여 평안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 문헌 자료는 뽕나무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절을 잘 선택하여 상묘를 기르고 또 그것을 밭에 잘 심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이전의 삼국시대보다 국가의 조직이 더욱 복잡해지고 백성의 생활이 더욱 분화되고 진보됨에 따라 비단의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비단생산을 위한 양잠의 장려가 역대 왕들의 적극적인 농상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백성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로 역대 왕들은 농상의 과학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엿보인다.

양잠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인종(仁宗) 재위 5년(1127)에 중국 송(宋)나라 초기 송광현(960~970)이 편찬한 잠서(蠶書)를 임경화(林景和)가 이두(吏讀)로 번역하여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 누에치는 법을 발전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잠업서적'을 펴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농상의 일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명종(1170~1197)이 교시한 뽕나무 재배에 있어 토양과 계절뿐 아니라 싹을 심는 달의 선택에서도 날씨와 기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의 창업 초기에는 전제(田制)를 개혁하고 감세를 단행하는 등 중농(重農)에 힘쓰게 하였으며 송(宋)나라의 문물(文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1231년(고종 18년) 몽고의 침입 이후부터 국정이 크게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은 농상을 의식(衣食)의 근본으로 삼고 지속적인 장려가 진행되었다.

권잠의 방식도 가족 수에 따라서 식상(植桑)량을 강제할당 하였다.

그리고 양잠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과를 따졌으며, 농사 전문기관으로 농무도감을 설치하였다.

권농사(勸農使)를 지방에 파견, 농사를 독려한 일이라든지, 한재(旱災)에 대비해 수차(水車)를 장려한 것, 우리나라 최초로 면화종자(棉花種子)를 들여와 면화 재배를 장려하

는 등 농업시책에 대하여는 기초를 다져가며 구체화 시켜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외환과 귀족들의 검병 등 농지 제도의 문란에서 오는 농촌의 피폐와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의 연속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 시대의 역대 왕에 의한 권잠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 ○ 태조 왕건 (王建 : 918~943)

즉위하면서 경내(境內)에 령(令)을 내려 3년간 전조(田租)를 면제시키고 농상(農桑)을 권과(權課)하였다.

#### ○ 8대 현종 (顯宗 : 1009~1031)

재위16년(1025) 3월에 제도의 주현에 령(令)을 내려 매년 상묘(桑苗)를 정호(丁戶)는 20주 백정(白丁)은 15주를 받머리에 심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된 구체적 양잠장려시책에 있어서 최초 기록이다.

#### ○ 9대 덕종 (德宗 : 1032~1034)

재위3년 되는 해(1034) 3월에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이것을 받들어 장려하는 것이 성주의 급무이니 제도, 주, 현은 조지(朝旨)를 받들어 춘경(春耕), 하경(夏耕), 수확(收穫)의 삼시(三時)에는 농민들이 농상에만 힘쓰도록 하라는 교지(教旨)를 하달하였다.

#### ○ 11대 문종 (文宗 : 1046~1083)

원년 2월에 연주방대부사(連主防禦副使) 소현(蘇顯)이 부임한 이래 농상을 권장하여 민생을 잘 보살피고 그 치적이 훌륭하다고 하여 상서이부(尙瑞吏部)에 명하기를 제도(諸道)에 준하여 등용하도록 하였고, 공이 크다 하여 임기 후에도 유임토록 하였다.

왕 20년 4월에 명하기를 '군목(郡牧)의 직책은 농상(農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제도(諸道) 외관의 장(長)은 모두 권농사(勸農使)의 직무를 함께 수행 하라'는 등 농상(農桑)을 장려하고 관리에게 농업과 함께 양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17대 인종 (仁宗 : 1122~1146)

왕 6년(1128) 3월에 령(令)을 내려 '농상(農桑)을 권장하며 의식을 풍족하게 함은 성왕의

급무'라 하였고, 왕 23년 5월에는 수양도감(輸養都監)의 상주(上奏)에 따라 제도의 주현에서 토질이 밭으로 적합지 않은 곳에는 뽕나무, 밤나무 등을 심도록 할 것을 권장하였다.

#### ○ 19대 명종 (明宗 : 1170~1197)

왕 3년(1173)에 7개도의 안찰사(按察使)와 5도 감창사(監倉使)로 하여금 권농사를 겸하게 하여 농상(農桑)을 적극 권장하게 하였으며, 왕 18년(1188) 3월에 상묘(桑苗)를 적기에 심도록 하였다.

#### ○ 24대 원종 (元宗 : 1259~1274)

왕 15년(A.D 1274) 5월에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군량(軍糧)을 모으라고 하여 당시 원(元)의 내정간섭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 ○ 25대 충렬왕 (忠烈王 : 1274~1308)

즉위하던 해 12월에 사신을 원에 보내서 원나라가 아방(我邦) 각 주현에 수령을 분견(分遣)하여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고 파종, 수확 등 농사를 독찰하며 매년 관군에 공급하니 민생이 힘들어하므로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왕 3년에는 농무도감을 설치하였다.

#### ○ 27대 충숙왕 (忠肅王 : 1313~1330)

12년(1325) 10월에 8개 항목에 대하여 하교하기를 '농상(農桑)은 왕정(王政)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니 적기에 이를 권장하여 실기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 31대 공민왕 (恭愍王 : 1351~ 1374)

왕 5년(1356) 6월에 령(令)을 내려 민가에 뽕나무와 삼을 심는 것을 가족 수로서 그 율을 정하라 하였고, 왕 20년 12월에는 교지를 내려 농상(農桑)은 의식의 근본이라 제도의 순문사(巡問使)와 안염사(安廉使)는 그 수령의 종상간전(種桑墾田)의 다소를 살펴 출척(黜陟)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려는 건국 시기부터 왕조의 전 기간에 걸쳐 역대 왕들은 농상권장(農桑勸獎)을 왕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과 잠업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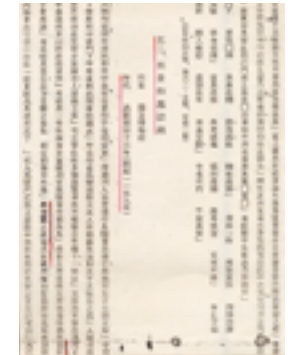
그러나 몽고의 침입 이후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는 잠업이 침체 현상을 빚게 되었다. 그 이유는 원나라로부터 면면(綿綿: 목화 棉花)이 전래된 원인도 있겠지만 한편 고려 말 내 우의환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말 일시적 잠업 침체 현상은 조선왕조 개국 이후 여러 잠업 진흥정책이 시행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된다.

## 2. 잠상기술서(蠶桑技術書)의 간행

고려 인종 5년(1127) 임경화(林景和: 1102~1158)가 중국의 손씨잠경(孫氏蠶經)에 방언(方言, 이두)으로 해석을 붙인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하여 누에치는 법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서(農書) 중 가장 오래된 최초의 전문농업 기술서적이다.

1159년 임영년(林永年)이 자기 부친 임경화의 장례를 치루면서 평소에 부친과 막역지간이었던 전중시(殿中侍) 어사(御史) 허홍재(許洪財)에게 부탁하여 부친 묘지명을 작성하였는데 '잠서주해' 편찬과 관련된 비문의 기록을 보면

‘정미년(1127) 봄 ... (중략) ... 이때 손씨잠경이 비로소 세상에 나돌았으나 읽는 자 그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이 방언(方言, 이두)으로 풀이하여 아뢰니 조정이 이를 인간(印刊)하여 중외에 반포함에 드디어 누에 기르는 법이 흥하게 되었다. (丁未年春 (中略) 是時孫氏蠶經 始行于世 然讀者莫曉其意 公以方言釋之 秦取 朝旨頒諸中外 遂興養蠶 之法)’



임경화 잠서주해 편찬기록 「묘지명」  
(韓國金石文追補 : 이난영)

라는 글귀가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정미년은 임경화가 25세 되던 해로 대부(大府, 御衣의 원료담당)의 하급관리인 주부(注簿)와 승(丞)의 위치에 있을 때이며 손씨잠경은 북송(北宋, A.D 960~975) 사람으로 손광현이 편찬한 잠서이권(蠶書二卷)을 말한다.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임경화는 손씨잠경 전부를 주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을 초록하고 주해한 것으로 믿어지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주해본으로 알려져 있다.

## 제6절 조선시대 양잠 (1392~1910)

정치·경제적인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기반을 구축한 조선왕조는 건국과 함께 고려 시대 말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잠업의 침체상황을 개선하여 국가산업으로서 농업과 함께 잠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교서를 반포하며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원이다.”하여 권잠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조선시대 통치 기간 전반에 걸쳐 국가산업의 최우선 순위로 잠업이 추진되는 기본시책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조선 태조실록 <즉위 교서 반포>

양잠이 성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에치는 기술의 발달과 우수한 잠종(蠶種)의 보급이 뒤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상목재식(桑木栽植)이 가장 선결 요건이다.

그리고 잠업을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장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잠업기술관련 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잠업서적을 간행함으로써 과거 경험과 재래방식에만 의존하던 잠업생산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정종 2년(1400)에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잠신(蠶神)에게 제의(祭儀)를 지내는 선잠제를 조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거행하였다.

태종 11년(1411)에는 후비가 궁궐 내에서 친잠을 행하도록 명하였고 ‘공상잠실법(公桑蠶室法)’을 제정, 국가가 운영하는 잠업관련 기관으로 도회잠실을 각 지방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잠업의 선진기술전파 및 지도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세종 5년에는 친잠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복궁과 창덕궁에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친잠의 거행과 각도(各道)에 잠실을 확대 설치하여 도회잠실에서 양잠기술을 습득하게 하였다.

세조는 즉위년에 호구별 뽕나무 심는 수량과 뽕나무를 마구 베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양잠조건(養蠶條件)’을 제정 각 지방에 시달하였다.

또한 세조 원년(1455)과 14년에는 ‘종상법’을 발포(發布), 뽕나무 식재를 강력히 실시하였다.

이후 성종과 중종을 비롯하여 역대 왕들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양잠을 권장하며 이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권장하기 위하여 ‘왕비 친잠행사’를 진행하였고, 잠상에 관한 많은 도서의 간행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권잠정책을 펼쳤다.



조선시대 한양의 상림(뽕밭) 지역

현재 창덕궁에 왕비가 친잠을 행하던 서향각의 어친잠실과 천연기념물 제471호로 지정된 뽕나무(2006년 4월 6일 지정)가 관람지 앞에 자리하며 당시의 궁궐내 양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창덕궁에는 궁궐에서 누에를 키웠다는 기록을 증명하듯 다양한 종류의 수목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수종이 뽕나무다.

### 1. 조선시대 왕의 권잠(勸蠶) 정책에 관한 기록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양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권잠 정책과 관련된 주요 기록들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대 태조(太祖 : 1392~1398)

태조 원년(1392)는 창업완성 후 태묘에 고유하고, 정전에 앉아 즉위 교서를 반포하면서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들로 하여금 군현(郡縣)을 나누어 독려하여 초겨울에는 제방(堤防)을 쌓고 화재(火災)를 금하게 할 것이며, 첫봄에는 뽕나무를 심고, 5월에는 뽕나무의 열매를 심게 하여 감히 흑시라도 태만하지 말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 정종(定宗 : 1399~1400)

정종 2년(1400) 3월 잠신(蠶神)에게 대한 선잠제(先蠶祭)를 처음 지내고 11월에는 양잠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인 능단(綾緞)을 관복의 옷감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우리 명주나 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 태종 (太宗 : 1401~1418)

태종 10년(1410) 사헌부에서 “옛날 주례(周禮)의 예를 들어 ‘종상지법(種桑之法)’에 의해 각호마다 정해진 뽕나무 재식(栽植) 수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주 미달에 저화(楮貨) 1장(張)씩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하자(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무자 조) 왕이 이를 옹계 여겨 금년 내로 ‘공상잠실법(公桑蠶室法)’을 제정하라고 명하였다.

태종 11년(1411)과 18년(1418)에 의식은 민생의 중요한 것이니 이를 폐할 수 없으며, 예로 후부인(后夫人) 친잠(親蠶)의례(禮)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를 궁중에서 하도록 하라며 후비친잠례(后妃親蠶禮)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후비친잠례 : 왕비와 함께 궁궐내의 여인들이 양잠을 통하여 궐내의 의복 소재로 누에를 사육하여 명주 원단을 공급하는 일을 의미)

태종 13년(1413) 종묘, 사직, 별묘를 대사(大祀)로 선잠제를 선농제와 같이 중사(中祀)로 정했다.(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신유조)

태종 15년(1415) 원나라 때 사농사(司農司)에서 편찬한 ‘농상집요(農桑輯要: 1273년 원나라 농서) 가운데 권4편 양잠편(養蠶編)을 이두(吏讀)로 번역하여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를 편찬케 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잠기술서적).

태종 15년(1415) 12월 10일과 16년(1416) 4월 1일에는 판승문원사 이적을 양근·가평 등지에 보내 양잠할 곳을 살피게 하다. 같은 해 2월 도회잠실(都會蠶室)를 가평의 조종과 양근의 미원(迷原) 두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각각 찰방사(察訪使) 채방별감(採訪別監)을 파견, 양잠토록 하였다.

(김영진, 농림수산고문헌비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 153.)

(우리나라 최초의 잠실설치 : 잠실이란 이름의 유래)

- 5월 26일 잠실 채방사 이적과 별감 이사흠이 양잠한 실적을 복명하였다.  
- 8월 5일 판통례문사 이적의 상서로 양잠 육성을 위하여 각도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태종 17년(1417) 정월에 경기도 가평, 개성부 유후사(留後司), 충청도 청풍, 경상도 의성,



태종실록 - 최초 잠실 설치 기록

황해도 수안(遂安), 전라도 태인(泰仁) 등 5개도에 각 1개소씩 잠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태종실록 33권 17년 정월 무술조)

## ○ 세종 (世宗 1418~1450)

세종 5년(1423) 2월 뽕나무를 경복궁에 3,590주 창덕궁에 1,000주를 심게 하고 두 궁궐에 잠종을 주어 기르도록 하였으며, 왕 8년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세종 11년(1429)에 각도에 잠실을 설치케 하였다. (태종 당시 5개도 설치이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에 추가설치) 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노농(老農)의 영농체험담을 들어 정초(鄭誥)로 하여금 ‘농사직설(農事直說: 중국농서 의존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술한 종합농서의 효시)’이라는 농서를 교열하고 편찬케 하였다.

세종 13년(1431) 2월에는 양잠을 권장하기 위해 잠종(蠶種)을 종친과 이품(二品)이상에게 하사함. 이해 7월에 경복궁과 창덕궁에 뽕나무를 많이 심은 결과 뽕잎이 남아돌아 왕이 잠실을 더 설치하려고 했으며 이보다 3개월 전에 왕이 연희궁에서 기르는 잠종이 적은 관계로 경복궁, 창덕궁의 뽕잎이 남아돌자 이듬해부터 잠종을 더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26년(1444)에 농상(農桑) 독려를 확인하고 ‘잠업주해(蠶業註解: 가장 오래된 잠업서적)’를 편찬케 하였다.

세종 32년(1450)에 도회잠실에서 양잠기술을 습득시켰다.

## ○ 문종 (文宗 1450~1452)

문종 원년(1450) 4월 밤섬에 일반작물 재배를 금하고 오직 뽕나무 묘목만 심도록 하였다. 현재 여의도 인근 밤섬이 당시에는 뽕나무 재배단지 지정된 곳이다.

## ○ 단종 (端宗 1452~1455)

단종 2년(1455) 9월 양잠을 장려, 과수로 공지 발독에는 재가를 얻어 뽕나무를 심도록 하였고, 각도 도회잠실에 령을 내려 잠종을 채종하여 이를 제읍에 배포하며 양잠을 하게 하고 이의 근태 성적을 보아 수령을 상벌하였다.

## ○ 세조 (世祖 1455-1468)

세조 원년(1455) ‘종상법(種桑法)’을 제정하였으며 ‘농상은 왕정의 근본이며 국모가 뜻을 두고 있음은 실로 생민의 복됨이라’ 하였다.

“종상법은 호조(戶曹)의 청하는 바에 따라 행한 것으로 대호(大戶)에는 300주, 중호(中戶)에 200주, 소호(小戶)에 100주, 기타 가구에는 50주씩 식상(植桑)토록 하고 이를 전벌(剪伐)하는 자에게는 죄를 주도록 한 것이며, 한편 내원(內苑)에 명하여 상주(桑株)를 제사(諸使)에 분배하여 식재시키고 이를 성심껏 배양하지 아니하여 고손(枯損)케 하는 자에게도 죄를 주었다.”

4월에는 서연관이 잠실을 동궁에 설치하는 것은 땅이 좁고 불편하니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청하므로, 왕은 말하기를 잠상(蠶桑)은 중요한 농사이니 가까이 설치하고 또 부인잠소(夫人蠶繅: 왕비가 누에치는 것)라는 예(禮)가 있으니 중궁과 세자빈이 함께 가까이하며 그 공을 보고 싶다고 하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함에 따라서 얼마나 양잠을 중요시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세조 4년(1458)에는 서강(徐岡)에게 명하여 ‘잠서주해(蠶書註解: 실제 잠업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발행한 서적)’를 편찬시키고 ‘양잠조건’을 호조(戶曹)에 명하여 널리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양잠조건(養蠶條件)

- ① 수령(守令) 감독하에 매년 상심(桑椹:오디) 2~3두씩 모종하였다가 이것이 자라면 뽕나무 심기에 알맞은 곳에 옮겨 심고 그루 수를 호조(戶曹)에 보고하게 한다.
- ② 고을의 대소에 따라 잠종(蠶種)을 나누어 준 뒤에 진사(眞絲)를 수합하고 뽕나무가 없는 고을은 당해부터 뽕나무를 심고 2~3년을 기다린 후에 잠종(蠶種)을 보내도록 한다.
- ③ 제읍(諸邑)의 뽕따는 사람은 촌민(村民)을 제외 시키고 입번(入番)한 인리(人吏)·일수(日守)·관노비(官奴婢)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한다.
- ④ 잠모(蠶母)는 누에를 잘 치는 비자(婢子)가 맡고, 감고(監考)는 품관(品官) 중에서 근검한 사람을 가려 뽑아 그 실적에 따라 상벌을 주며, 수령을 전최(殿最)할 때 관찰사

는 양잠에 대해 근실하고 태만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제읍에서 누에고치 생산에 급급하여 분배된 잠종(蠶種)보다 더 많이 기르거나, 백성들이 뽕나무 잎을 따거나, 혹은 농민을 사역(使役)하거나 배당된 누에고치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관(官)의 물건을 내다가 민간의 것과 바꾸어 폐해를 일으키거나, 관가(官街) 안에서 누에를 쳐서 폐해를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
- ⑥ 민호(民戶)를 대호, 중호, 소호로 구분하여 뽕나무를 심고 가꾸게 하되 이를 어기면 가장(家長)과 수령(守令)을 아울러 과죄(科罪)한다.

세조 7년(1461) 3월 북쪽 지방의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디(桑椹)를 많이 따서 북도(北道)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게 하고 법에 따라 과중하게 한 뒤 묘목의 심은 상황을 살펴 이를 보고하게 하였다.

세조 8년(1462)에는 후원에 농잠상을 살펴보았으며,

세조 11년(1465) 강원도 관찰사 이윤인에게 명하여 실농(失農)으로 인하여 백성이 밍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 원기를 회복하고(蘇復) 농상(農桑)에 힘쓰라고 하였다.

세조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강력한 잠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뽕나무 재식을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 도회잠실(都會蠶室) 부근의 공상재식지(公桑栽植地)는 물론 전국의 모든 민호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뽕나무를 심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제정했다. 그 외에도 뽕나무 가지를 치거나 벌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4년 후에 제정된 ‘양잠조건’에 수록된 것을 그 후 성종 15년 12월 완성된 ‘경국대전’공전 재식조(栽植條)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세조는 내원(內苑)의 상묘를 각 관사에 나누어 주어 심게 하고 이를 재식하지 못해 고사(枯死)시키면 그 죄를 묻도록 했다.

## ○ 예종 (睿宗 1468~1469)

예종 원년(1468) 11월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각도에 관찰사, 수령을 두는 것은 농상(農桑)에 힘쓰게 하고 무기를 정비하여 도적을 막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고, 동궁(경복궁)에 잠실을 설치토록 하였다.

예종 2년(1469)에는 내원(內苑)의 상묘(桑苗)를 각 관사(官司)에 나누어 심게 하고 이를 고사시키면 그 죄를 묻도록 하였다.

예종 2년(1469) 3월에는 함길도(咸吉道) 지역에 오디를 보내어 파종케 하고 뽕나무를 가꾸게 하였고, 왕은 잠실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잠실을 전국의 각 읍까지 설치토록 하였다.

○ 성종 (成宗 1469~1494)

성종 원년(1469) 11월에 관찰사에게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세종 당시에 각도에 잠실 1개소를 설치하고 근읍(近邑) 관청의 노비로 하여금 일을 돕게 하였다.

성종은 '세종이 말하기를 만일 잠실을 매읍(每邑)에 개설하면 사람이 편리하여 잠리흥성(蠶利興盛)하게 되어 노비 왕래의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세의 수령은 이러한 본의를 깨닫지 아니하고 리졸(吏卒)들의 과중한 처사가 많다. (~ 중략) 세종조의 예에 의하면 매도에 단일도회를 두었다.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상(桑)에 적당한 곳에 도회를 설치하여 구례(舊例)를 참고하고 부근에 제읍(諸邑)의 사람들로 하여금 잠모 또는 조력인을 정하여 돌려가며 균역하게 하여, 여기서 생산한 고치(繭)는 친감직진(親監直進)하여 이를 상벌케 한다.' 라고 하였다.

성종 3년(1472)에는 절약과 검약을 이행하고 농상에 전념하여 불급한 일을 하지 말도록 명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 그 내용 가운데 양잠관을 두어 각 지방 수령이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였으며, 이를 각 수령이 규정하고 '상목배양절목(桑木培養節目)'으로 제정 수록하였다.

<상목배양절목(桑木培養節目)>

- ① 낙천정(樂天亭), 연희궁(衍禧宮) 두 잠실부근은 제사(諸司)가 뽕나무를 더 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꾸게 하되 잠실에 배치된 내궁과 상의원에서 파견한 관리가 검찰하고
- ② 잠실에서는 오디를 파종하고, 제사(諸司)는 뽕나무 묘목을 심게하여 주수의 다소에 따라 상벌을 내리며
- ③ 호조(戶曹)에서 전교 한대로 밤섬의 제사의 밭 가운데 자생한 뽕나무를 베고 난 그

- 루터기에서 돋은 싹을 정성들여 가꾸게 하고
  - ④ 외방(外方)의 민호(民戶)는 대호, 중호, 소호로 나누어 뽕나무를 심게 하되 관리를 파견하여 확인하며
  - ⑤ 제도(諸道)의 도회잠실 부근에는 수령 책임 하에 뽕나무를 심게 한다.
- 이상 절목을 위반 할 때는 호주는 물론 해당 수령과 감사를 각각 논죄(論罪)하도록 하였다.

성종 4년(1473)에는 '역민법(役民法)'을 제정하여 농상(農桑)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성종 6년(1475) 정월에는 전일에 왕이 친히 선농의 교단(郊壇)에 제를 올리고, 익일에 친경하는 적전에 대한 친경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밤섬이 문종 때 뽕나무 재배단지로 지정되었지만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자 그 대책을 수립하기를

- ① 앞으로는 세 잠실과 제사(諸司)에서 상묘를 많이 생산케 하여 매년 뽕나무를 심게 하고,
- ② 밤섬 안에 거주하는 사포서(司圃署), 봉상시(奉常寺), 제용감(濟用監)의 노비로 하여금 나누어 지키게 하며
- ③ 관리 소홀로 뽕나무가 고사 하면 해당 관서의 관리를 벌주고
- ④ 병조로 하여금 4산(四山)의 예와 같이 간수하는 군인 3명을 정해 뽕나무 베는 것을 4산의 소나무 베는 죄와 같이 처벌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는 지방에 부임하는 수령들이 힘써야 할 7가지 일, 곧 수령7사(守令七事) 가운데 농상성(農桑盛)을 포함하여 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종 7년(1476) 3월에 '왕비는 처음으로 친잠의례'를 행하였으며,

성종 8년(1477)에는 예조에서 3월 이내 사일(巳日)을 택하여 선잠례(先蠶禮)를 행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행하도록 하고, 친잠례도 행하도록 함.

왕의 명을 받아 친잠례를 마친 이후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

<성종(成宗)의 권농권잠교시(勸農勸蠶敎示)>

"옛일을 상고하니 왕자가 친경(親耕)해서 먼저 농사에 힘쓰게 하고 후비가 친잠(親蠶)해서



여인네의 누에치는 기술을 권하였다.

그 적전(籍田)과 공상(公桑)의 제도는 경사(經史)에 실려 있어 밝게 상고 할 수 있다.

대개 백성의 근본은 의식(衣食)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의식의 근원은 농상(農桑)에 있다. 그러나 추울 때 갈고 더울 때는 김매는 것은 농사일의 심한 괴로움이고, 가시를 뚫고 들어가서 뽕을 따는 것은 누에치는 수고로움이 더욱 심하다.

이러므로 근본에 힘쓰는 자는 적고 손을 놀리는 자가 많다.

이래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었다.

역대의 임금들이 농상(農桑)이 급함을 알고 백성의 일에 힘써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에게 농사일을 권장하는 것은 겨우 문서만 갖추었을 뿐 실상은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찮은 덕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스리기를 힘써서 백성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멀리 현명한 왕의 훌륭한 자취를 탐구하여 내 몸소 행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에 성화(成化)10년 맹춘(孟春) 어느 날에 동교(東郊)에 나아가 몸소 퇴거(耒耜)를 잡아 옛 방법을 강구하였다.

농(農)은 식량을 넉넉히 하는 길이고, 상(桑)은 옷을 넉넉히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예관에게 명하여 옛 법도를 상고하고 당시의 형편에 맞도록 참작하여 그 의식을 만들게 하고, 왕비는 또 금년 3월 14일에 내외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다시 '친잠의 예'를 행했다.

아! 옛날 희실(姬室)이 성할 때에 주공(周公)이 빈풍(邠風)의 시(詩)를 올렸다.

거기에는 무릇 천도(天道)의 변화에 따라 인사(人事)는 조만(早晚)이 있는데 심고 수확하는 어려움과 누에를 치고 현(玄)·황(黃)을 만드는 곡절(曲折)이 섬세(纖細)하게 모두 갖추어졌는데, 이는 인군 된 자로 하여금 백성이 의지 할 바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즐겨 듣고 또 몸소 행하였으니, 백성이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공역(功役)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여 농상(農桑)에 그 힘을 다 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에는 그 재물이 넉넉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느 집이나 의식이 풍족하여 태평의 교화(教化)를 이룰 것이다.

그 일을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령에게 반포하고 수령은 시골 구석구석에 전하게 하여,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로 하여금 모두 스스로 깊이 갈고 자주 김매는 일에 힘을 다하여 봄에 경작하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라.

누에를 번성하게 길러서 옷과 솜이 넉넉하게 되고 항산(恒産)이 풍족하게 되면, 예락(禮樂)을 일으킬 수 있어 백성이 인(仁)하고 수(壽)하는 경지에 오를 것이고, 국가(國家)는 지치(至

治)의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조정이나 민간에 깨닫게 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

이 하교(下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잠례를 치른 성종의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왕의 친경과 왕비의 친잠이 함께 시행됨으로써, 성종은 왕실의 농상에 대한 의지를 모든 백성에게 알릴 수 있고 아울러 백성들에 대한 애민정신을 널리 드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 9년(1478) 윤2월 친잠례(親蠶禮)에 대한 의식을 규정한 '친잠응절목(親蠶應節目)'을 제정하고 친잠례를 행하도록 하고, 이는 격식과 절차를 갖춘 최초의 왕비 친잠례 행사이다.



왕비 친잠례복 원형 전통재현

성종 23년(1492)에 비단의 색깔과 직조기술을 높이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에 능라장(綾羅匠)을 포함시켜 파견하였다.

성종은 백성들에게 상목재식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중앙관사를 좌우 두 편으로 나누어 매년 상목재식 경진대회(桑木栽植競進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상목을 재식하는 장소를 밤섬으로 정하고 이 섬을 좌우로 나눈 뒤 매년 대사(大司)는 300주, 중사는 200주, 소사는 100주씩 뽕나무묘목을 심고 뽕나무 고목도 보살피게 하여 묘목재식의 많고 적음과 뽕나무 고목의 무성 여부를 가려 그 승부를 정했다. 이때 좌변에 소속된 관사는 군기시(軍器寺), 사섬시(司贍寺) 등 23개 관사이고 우변에 소속된 관사는 내섬시(內贍寺), 사도시(司導寺) 등 23개 관사가 속해 있었다. (대전속록 공전 재식조)

성종 24년(1493) 3월에 친경(親耕),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하였다.

#### ○ 연산군(燕山君 1494~1506)

연산군 10년(1504) 왕비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연산군 11년(1505) 6월에는 유권자(有權者)에게 사(紗)·라(羅)·단(緞)의 명주옷을 입도록 하여 비단수요를 늘게 하였다.

○ 중종(中宗 1506~1544)

중종 원년(1506) 9월 한양 동, 서 잠실(蠶室)을 다시 설치케 하고 지방의 잠실도 일부 부설(復設)하였다. 오늘날 잠실동 등의 지명(地名)이 있게 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일제강점 시기 일인들의 잠종 제조지대이던 경기도 시흥군 언주면 잠실리 등)

중종 8년(1513) 3월 친경과 친잠하는 소이는 생민의식의 본을 중하게 함이라고 하고 농잠(農蠶)을 권하였다.

중종 11년(1516) 5월에는 일반 백성도 견사(繭絲)를 생산토록 권장하고 양잠진흥정책으로 민정의 균역번상(軍役番上)도 양잠의 시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중종 12년(1517) 2월과 13년(1578) 3월에 ‘친잠교서’를 김안국이 초안하여 왕명으로 발포하였다.

중종 8년(1513) 3월과 13년(1518) 왕비 친잠례를 거행하였으며 당시에 발표한 친잠교서는 다음과 같다.

<중종(中宗) 13년의 친잠교서>

“왕은 유고(諭告)하노라, 옛적에 제왕은 친경(親耕)하고 황후가 친잠(親蠶)하였음은 민생의 의식(衣食)하는 근본을 중히 여겨 천하에 숭선하는 소이(所以)였던 것이다. 이제 왕과 황후의 존귀(尊貴)로서도 오히려 경전(耕田)하고 직포(織布)하는 노고를 꺼리지 않고 상위(上位)에서 실행하니 항간에 있는 백성이야 누구들 흥기(興起)하여 격려하지 않겠는가.

나는 덕이 옛적에 철왕(哲王)만 같지 못하니 몸소 행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바가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나 즉위해서 집정한지가 지금 8년이나 되었는데 백성의 풍속은 날로 추락해져 본실(本實)은 버리고 기말(技末)만 따라서 남자는 경작함에 근면하지 못하고, 여자는 잠직(蠶織)함에 노력하지 않아 부족(富足)하게 될 수 없어서 모두를 기한(飢寒)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겨 주야로 염려되어 장려하고 감화시키는 도리를 연구하였으

나 그것은 결국 나 한사람의 행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정월 길일에 나는 백관(百官)과 기노(耆老)를 거느리고 남무(南畝)에서 친경(親耕)하고 또한 27일에는 왕비(王妃)는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친잠의 예를 거행하였으니 백성들은 상자(上者)의 소위(所爲)에 거의 느끼는 바가 되어 무본(務本)해서 근업(勤業)하는데 종사할지이다. 오직 중외(中外)에 치민관(治民官)은 각기 다 나의 지의(至意)를 체념(體念)해서 촌리(村里)에 널리 전포(傳布)하고 몸소 삼가 힘써서 그의 경내(境內)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어 근면하여 안일을 부끄럽게 알고 근로(勤勞)를 즐겁게 알도록 불경(不耕)하는 자가 없고 여자는 길쌈을 하지 않는 자가 없게만 하면 식량과 포백(布帛)이 날로 쌓여서 의식(衣食)이 풍족해질 것이며 풍속(風俗)도 돈후(敦厚)해질 것이니 그 아니 거룩한 일인가. 그러니 교시(敎示)를 마땅히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중종 당시 양반 이문건의 양잠일기 [목재 일기]

중종 24년(1529) 3월 24일에는 친잠단(親蠶壇) 규격 : 方 三丈, 高五尺을 설치하고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 명종(明宗 1545~1567)

명종 8년(1553) 3월과 12년(1557)에 왕비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 선조(宣祖 1567~1608)

선조 5년(1572) 3월에 왕비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 광해군(光海君 1608~1623)

광해군 7년(1615)과 12년(1620)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 인조(仁祖 1623~1649)

인조 7년(1630) 4월에 제도(諸道) 관찰사에게 유시,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쓰임을 절약하고 징수를 박(薄)하게 하였다.

○ 효종(孝宗 1649~1659)

효종 6년(1655), 신숙(申淑)에 의해 ‘농가집성(農歌集成: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

초, 구황촬요 4권의 책에 수록된 내용을 증보와 개수를 거쳐 체제를 갖춘 종합농서)을 편찬케 하였다.

효종 10년(1659), 농상(農桑)에 힘쓸 것을 유지하였다.

○ 숙종 (肅宗 1674~1720)

숙종 2년(1676)과 3년(1677)에 친잠례를 행하였으며, 12월에는 경기, 경상, 충청의 3도에 별도로 지시하여 흉년이 들었음을 걱정하여 농민에 감역(減役)하여 주고 농상(農桑)을 잘 하도록 하며 관리의 착취를 엄중히 다루라는 영을 내렸다.



누에농사와 명주짜기 민화 (빈풍철월도)

숙종 31년(1701) 정월에도 비망기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는 평안한 것이라’하여 삼남(三南)의 재해를 걱정하고 이에 급선무는 농상(農桑)을 권하는 일이라 하였다.

숙종 42년(1716)년도 교시를 내려 제주도에 농상(農桑)을 권하여 도민을 구조하게 하였다.

숙종 당시에 농업과 양잠관련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농림, 축산, 잠업과 농촌생활을 총 망라한 종합적인 농업경제서적)’가 발행되었다.

○ 영조 (英祖 1724~1776)

영조 원년(1724) 임용된 수령들에게 “생민의 안락과 근심걱정은 수령에게 달려있다. 백리에 이르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공들은 조정에서 백성을 구하는 뜻을 잘 체득하여 농상(農桑)을 권장하라”하였다.

영조 4년(1728) 국(國)은 민(民)을 본(本)으로 할 것이요 민(民)은 의식(衣食)을 하늘(天)로 할 바이니 극중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농상을 적극 권장하였다.

영조 5년(1729)과 37년(1761), 40년(1764)에도 농상(農桑)을 독려하였다.

영조 10년(1734) ‘농가집성(農家集成)’인 ‘농서인권(農書印卷)’을 공송(公頌)하였다.

영조 37년(1761)과 40년(1764) 팔도에 농상을 특별히 권장하였다.

영조 43년(1767) 3월에는 왕비로 하여금 친잠의 예를 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그해에 친잠례 행사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널리 알리도록 왕비의 친잠행사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수록한 ‘친잠의궤(예조에서 펴낸 책으로 왕비가 몸소 양잠을 하는 절차와 의식을 기록)와 ‘잠중수건의궤(누에고치를 수확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기록)를 편찬하도록 명하고 왕은 직접 ‘친잠의주’를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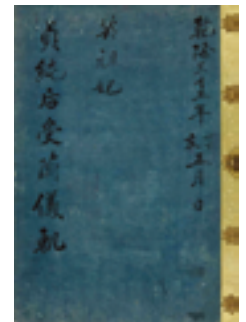


왕비 친잠의식 기록 - 친잠의궤

이 때까지는 친잠의례는 오례의(五禮儀)에 올려져 있지 않았다 하며, 영조는 교시하기를 “친잠례는 3월 상사일(上巳日)에 거행하였고, 11일 서릉씨의 전향을 먼저 송현문 안에서 행하게 하고 내전, 혜빈 세손빈 내외명부가 따라가며 축문의 두사에 조선왕비 모씨(朝鮮王妃 某氏)라 부르게 하라” 하고, 이에 친잠의 하루 전에 왕비는 경복궁에 이르러 선잠에 예를 올리고 채상례를 진행하였다.

4월에는 왕비가 처음으로 수견례를 행하였는데 고치(繭)를 내외명부(政府, 樞府, 宗親, 都尉, 禮戶判, 政院, 玉堂, 入侍史官, 藥房提調, 兩都留守, 八道觀察使, 廣州府尹, 楊州牧使)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제신(諸臣)은 모두 잔을 올려 감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해 가을 왕은 친히 석전(釋奠)을 하고 돌아와 말하기를 “지금 예를 행할 때의 왕복(王服)은 내전이 친잠(親蠶)한 것으로 짠 것”이라고 하였다.



왕비 수견의식 기록 - 잠중수건의궤

영조 46년(1770) 12월에는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우리의 의식은 주로 농(農)과 잠(蠶)에 있다 하고 조정에서는 수령에게 이르기를 농상성(農桑盛)의 3자는 6사(事)에 선행케 하여 그 중요성을 주지시켰고, 또한 국혼에 주단을 금하고 면포를 쓰도록 하였다.

당시 영조는 왕비의 친잠례 행사를 집행한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친히 써내려간 ‘정해친잠(丁亥親蠶)’이라는 글을 비석에 새겨 경복궁에 터를 마련하여 세웠던 친필(御

筆)비석은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망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영조 47년(1771)에는 농서인 ‘고사신서(攷事新書: 어숙선의 저서로 사대부로부터 일반선비들까지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책으로 권12 목양문편에 양잠관련 내용이 수록되어있다)’를 편찬케 하여 지방관의 권농(農)권잠(蠶)의 지침서로 쓰도록 하였다.

○ 정조(正祖 1776~1800), 순조(純祖 1800~1834), 헌종(憲宗 1834~1849), 철종(哲宗 1849~1863) 시대에도 팔도에 농상을 적극 권장했다.

○ 고종 (高宗 1863~1897)

고종 17년(1890) 5월 뽕나무 노상(魯桑) 품종을 경기도 양주에 처음 식재하였다.

고종 20년(1883) 12월 통리군국사무아문에 농상사(農桑司-호(戶)·농(農)·상(桑)·차(茶))를 설치하였다.

고종 23년(1886) 잠농공사를 설립하였다.

고종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순정효황후 친잠례 거행 (1910.6.25)